

‘황금노선’ 몽골 하늘길 잡아라... KAL 노리는 LCC

(대한항공)

韓-몽골, 복수 항공사 취항 합의
인천~울란바토르 독점노선 깨져
제주·이스타·티웨이 등 경쟁가열
운항능력증증 제주항공 가능성 ↑



제주항공 항공기.



이스타항공 항공기.



티웨이 항공기.

/각사

국내 항공사들이 ‘황금노선’으로 불리는 몽골 노선 확보에 나서고 있다. 특히 이번 몽골 노선은 저비용항공사(LCC)들의 치열한 경쟁이 예상된다.

7일 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가 이번 달 인천~울란바토르(몽골) 노선 운수권을 항공사 1곳에 추가로 배분할 방침이다. 정부는 지난달 16~17일 서울에서 몽골과 항공정상회담을 열고 복수 항공사 취항을 전제로 몽골 노선 취항을 기존 주 6회에서 9회로 늘리는데 합의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대한항공, 진에어 등 대한항공 계열을 제외한 제주항공, 이스타항공, 티웨이항공 등이 해당 노선 운수권 경쟁에 뛰어들었다.

◆韓-몽골 황금노선 놓고 치열한 경쟁

인천~울란바토르 노선은 30여 년간 대한항공이 독점해왔다. 6~8월 성수기 탑

승률은 90% 가까이 되고, 운임도 100만 원에 육박하면서 ‘황금노선’이라는 별명이 붙었다. 해당 노선은 운항거리(1975km)가 비슷한 홍콩과 비교해도 항공료가 두 배 가량 높고, 다른 노선들보다 경쟁이 치열하지 않아 안정적인 수요를 확보할 수 있다.

항공업계에 따르면 한국과 몽골간 항공수요는 지난 2018년 약 33만명 수준으로 연 평균 11% 증가했고, 최근에는 우후죽순으로 늘어난 동남아 노선 대신 몽골을 선호하고 있다. 실제로 올해 몽골은 세계관광기구(UNWTO)가 선정한 2019년 떠오르는 여행지 1위에 올라 항

공수요는 더욱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시아나항공이 해당 노선에 눈독을 들이고 있지만 현재 계열사인 에어부산이 김해~울란바토르 노선을 운용해왔다는 점에서 아시아나항공이 노선을 확보하는 건 쉽지 않다.

이번 몽골 노선은 제주항공과 티웨이항공, 이스타항공 가운데 한 곳이 맡을 가능성이 높으며 LCC 업체가 운수권을 쥐게 되면 가격 인하 경쟁을 통한 소비자 편익이 증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제주항공 취득 가능성 높아

LCC 업체간 몽골 노선 운수권을 놓고

경쟁이 심화되고 있다.

우선 에어부산은 부산~울란바토르 노선이 주 2회에서 주 3회로 늘어나면서 기존 2회에서 1회를 추가로 편성받게 되면 인천 노선은 제외될 전망이다. 이 때문에 급후계열사인 아시아나항공과 에어서울도 독과점 논란으로 운수권을 확보하기 부담스러운 상태다.

그렇다면 제주항공과 티웨이항공, 이스타항공으로 좁혀진다. LCC업계 1위인 제주항공은 가장 오래되고, 노선(67개)이 많다는 장점은 물론 안정성과 운항능력에서 검증받은 항공사라는 점에서 가능성이 가장 높다. 또 과거 청주와 대구~울

란바토르 노선의 부정기편(전세기)을 운항한 경험이 있다.

제주항공과 함께 몽골 노선에 공을 들이고 있는 티웨이항공은 몽골 노선 부정기 편성이 없다는 점이 아쉬움으로 남는다. 또 지난 3년 이내 자기자본이 잠식된 상태라 기본 점수만 획득할 가능성이 높다.

이스타항공은 최근 2년 동안 3차례 몽골노선 부정기 운항을 진행했지만 인천~울란바토르가 아닌 청주~울란바토르를 요청했다는 점에서 몽골 노선에 대한 관심은 예상보다 낮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한편 부산~울란바토르 노선(부정기편)을 운항 중인 에어부산은 지난달 27일 운수권 배분을 앞두고 마지막 점수파기에 들어갔다. 몽골 근로자 가족을 한국에 초청해 상봉 기회를 준 것이다.

항공업계 관계자는 “내달(3월) 인천~울란바토르를 운항하는 제2국적항공사가 탄생할 것”이라며 “LCC가 운수권을 배분 받게 되면 몽골 여행의 문턱도 낮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양성준 기자 ysw@metroseoul.co.kr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 기장 전시장 신규 오픈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는 7일 부산에 메르세데스-벤츠 기장 전시장을 신규 오픈했다고 밝혔다. 벤츠코리아에 따르면 기장 전시장은 연면적 153㎡ 규모이며 차량 전시 공간은 실제 도로 느낌을 재현하고 고객 상담 공간은 나무 소재 인테리어를 통해 차분하고 편안한 분위기를 조성했다. 사진은 메르세데스-벤츠 기장 전시장 내부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

“AI 스피커 ‘기가지니’로 영어 배우세요”

KT, 영어학습 콘텐츠 강화
영어소리대화 출시 등 다채



KT 홍보모델들이 국내 최초 AI 대화 서비스 소리 대화의 영어 버전인 기가지니 ‘영어소리대화’를 소개하고 있다.

/KT

KT가 자사 인공지능(AI) 기기인 ‘기가지니’에 영어학습 콘텐츠를 늘린다.

KT는 영어교육에 관심이 많은 육아가정을 위해 기가지니 영어교육 서비스를 강화했다고 7일 밝혔다.

우선 KT는 기가지니에 지난해 5월 대교와 함께 출시한 AI 동화 서비스 소리 대화의 영어 버전을 출시했다. ‘영어소리대화’는 영어책 문장을 읽으면 기가지니가 음향효과, 등장인물 대사 등을 들려주는 서비스다.

또 대교, 아람 등 6개 대형 출판사들의 책을 읽어주는 ‘동화 오디오북’ 서비스에도 영어 콘텐츠를 강화했다. 총 3018권의 동화 콘텐츠 중 580권을 영어동화로 편성했다.

전용 도서를 찍으면 기가지니에서 바로 음성이나 영상 콘텐츠가 재생되는 ‘기가지니 세이펜’을 통해서도 영어학습을 할 수 있다. 세이펜북스, PB잉글리시, 캠프브릿지 등 유명출판사 콘텐츠 약 2만여권의 도서 중 3000여권의 영어 책을 지원하

고 있다. 성인을 위한 영어교육 콘텐츠도 마련됐다. KT는 ‘기가지니 정각알림 서비스’에 야나두 생활영어 테마를 제공하고 있다. 이용자가 특정 시간 정각에 알람을 설정할 경우 영어 표현을 음성으로 안내해 준다.

이외에도 KT는 기가지니에서 가정에서도 영어학원과 동일한 영어학습을 할 수 있는 과교다생활영어 서비스와 각 상황별 영어대화를 학습할 수 있는 야나두 영어서비스를 제공한다.

/김나연 기자

정유4사, 4분기 1조 적자... 올해도 빨간불

SK이노·GS칼텍스·S-OIL 등
국제유가, 정제마진 등에 발목
‘경유 수요증가’ 하반기 반등 기회

국내 정유 4사가 지난해 4분기 통합 1조원이 넘는 적자를 내란히 기록했다. 국제유가, 정제마진 등이 발목을 잡았다.

국제유가는 지난해 3분기 배럴당 70달러 중반까지 올랐다가 이후로 떨어졌고 정제마진도 손익분기점을 하회하면서 실적에 악영향을 미쳤다. 정제마진은 휘발유와 경유 등 석유 제품 가격에서 원료인 원유 가격과 수송·운영비 등 비용을 제외한 금액이다.

7일 업계에 따르면 SK이노베이션과 GS칼텍스, S-OIL, 현대오일뱅크 등 정유 4사들의 지난해 4분기 합산 영업손실이 1조원을 돌파했다.

지난해 4분기 SK이노베이션은 4분기 2789억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했다. 또 GS칼텍스는 2670억원, S-OIL 2924억원, 현

대오일뱅크 1753억원 각각 영업손실을 기록했다.

이번 실적은 4분기 유가 급락에 따른 대규모 재고평가 손실이 반영된데다 정제마진도 대폭 하락해 정유 사업의 수익성이 크게 악화됐기 때문이다. 실제 지난해 4분기 평균 국제유가는 WTI 기준 58.7달러, 두바이유는 67.3달러로 전분기에 비해 큰 폭 하락, 재고평가 손실에 큰 영향을 끼쳤다. 정제마진은 2~3달러의 최저선을 유지하며 손익분기점을 상회했고 결국 적자로 이어지게 됐다.

올해 상황도 녹록치는 않다. 우선 정유사의 수익으로 이어지는 정제마진이 큰 폭으로 급감했기 때문이다.

실제 지난해 11월 싱가포르 복합정제마진은 손익분기점 아래인 3.8달러로 떨어진 이후 계속 하락하고 있다. 지난달 평균 싱가포르 복합정제마진은 배럴당 2.5달러로 집계됐다. 이는 국내 정유사 손익분기점(4~5달러)을 크게 밑도는 수준이다. 정제마진이 손익분기점 밑으로 떨어

지면 석유제품을 생산할 수록 적자가 쌓이게 된다.

정제마진이 급락한 이유는 미·중 무역 분쟁 등으로 인한 세계경제 둔화는 물론 북미에서 생산하는 휘발유가 늘고있기 때문이다.

정유업계에서는 올 하반기 반등의 기회를 노리고 있다. 우선 2020년부터 적용되는 국제해사기구(IMO) 황 함유량 규제로 인해 올 하반기부터 선박용 경유 수요가 늘어날 전망이다. 상대적으로 가격이 비싼 저유황용 사용이 늘면 정제마진이 개선될 수 있다.

강동진 현대차투자증권 연구원은 “IM O2020 시행에 따라 올 하반기 디젤 마진 개선이 기대되며 가솔린 마진 역시 점진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며 “최근 국내 정유사들이 주로 사용하는 두바이 유가는 브랜드유보다 더 저렴하기 때문에 하반기로 갈수록 국내 정유사들의 원가 경쟁력도 개선될 전망”이라고 내다봤다.

/김유진 기자 ujin6326@

SKT, ‘양자암호통신기술’ 국제표준 된다

‘양자키 분배’ 등 신기술 2건
ITU-T 회의서 과제 채택



SK텔레콤이 양자암호통신 기술의 국제 표준화를 위한 추가 과제 선정에 성공하며, 글로벌 기술의 기준을 세우게 됐다.

SK텔레콤은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국제전기통신연합 전기통신표준화 부문(ITU-T) 회의에서 제안한 양자암호통신 관련 신기술 2건이 국제표준화 과제로 채택됐다고 7일 밝혔다. 국제표준화 과제로 채택된 기술은 ITU-T 내 수십여 개 국가의 논의를 거친 뒤 글로벌 표준이 된다.

이번 ITU-T 회의에서 채택된 신기술

은 통신망에서 양자키 분배 활용을 위한 시스템, 양자키 분배를 위한 기존 암호화 체계 활용 방법 등이다. 두 기술은 통신망에 양자암호를 적용하기 위해 필요한 핵심 기술로 꼽힌다.

또 SK텔레콤은 지난해 9월 ITU-T에서 국제표준화 과제로 채택된 통신망에서 양자키 분배를 위한 보안 프레임워크, 양자난수발생기 보안구조 기술의 최종 표준에 반영될 내용을 발표해 승인 받

았다.

이번에 국제표준화 과제 2건을 추가 채택 받음에 따라 SK텔레콤은 ITU-T에서 총 4건의 양자암호기술 관련 국제표준화 과제를 수행하게 됐다. 양자암호통신 국제표준화 과제를 4건 이상 수행하는 기업은 세계에서 SK텔레콤이 유일하다.

SK텔레콤은 그간 미국, 중국 등 전세계 통신 강국들이 참여한 ITU-T 회의에서 양자암호기술관련 워크숍과 실무 회의를 주재하는 등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했다. 특히 양자암호기술 표준화를 위한 실무 회의 의장단으로 위촉되기도 했다.

/김나연 기자 silkni@